

연구보고 09-R01-2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장원섭(연세대학교 · 교수)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등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선택 실태를 파악하고 진로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졸 미진학자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방안 및 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였음.

2. 주요 연구결과

- 고등학교 졸업자의 92.6%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한 졸업자는 4.1%, 실업상태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 졸업자는 3.3%로 나타났다.
- 월평균가구소득이 높고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대학진학 보다 재수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았음.
- 취업집단과 취업준비집단(실업)을 구분하는 요인은 고등학교 계열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할 경우 전 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
-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취업을 하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현실적으로 높은 교육포부는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임.

- 2-3년제 대학과 4-6년제 대학 선택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4-6년제 대학을 선택한 경우 부 최종학력, 학업성적, 교육포부가 높고, 남자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4-6년제 대학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로교육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취업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정책적 제언

1) 고졸 비진학자 및 고졸 실업자에 대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방안 모색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하고자 희망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청소년은 진로지도 경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취업준비(실업) 집단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나 진로성숙도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이나 자원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도 다른 집단에 비해 저조하였음. 제도교육 내에서 진로지도를 받기 어려운 고졸 대학 비진학자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파악하여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활하게 직업세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전체 청년실업자 중 고졸 이하 청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대책에서 이들이 소외되고 있으며, 타 학력층에 비해 유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 고졸 실업자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함.

2) 취업 희망자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며,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실업이나 비경황 상태에 놓이지 않고 취업을 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의 필요에 적합한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격려해야 함.

3) 고졸자를 위한 양질의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무분별한 대학 진학 억제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청년실업, 하향취업 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 독립과 결혼 및 출산 등과 같은 성인기의 이행을 지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됨. 불필요한 대학진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양질의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원래 설립 목적이 부합되게 전문 기능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의 인력부족 직종을 파악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목 차

I. 서 론	3
II. 이론적 논의	
1. 개인적요인	10
2. 구조적요인	15
3. 관계적요인	26
4. 학습과 경험요인	33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41
2. 연구방법	42
IV. 연구결과	
1.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기초분석	47
2.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51
3. 2-3년제 대학 vs 4-6년제 대학 로짓분석	58
4. 위험률 분석	59
V. 결론	
1. 분석결과의 요약	69
2. 정책적 제언	73
참고문헌	77

표 목차

<표 IV-1> 기술통계분석 결과1	48
<표 IV-2> 기술통계분석 결과2	50
<표 IV-3>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대학진학집단을 중심으로	52
<표 IV-4>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대학진학준비(재수)집단을 중심으로	54
<표 IV-5>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취업집단을 기준으로	56
<표 IV-6>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취업준비집단을 기준으로	57
<표 IV-7> 대학유형결정요인에 관한 이항로지트분석 결과 ...	58
<표 IV-8> 위험률 분석1	61
<표 IV-9> 위험률 분석2	63
<표 IV-10> 위험률 분석3	64

I. 서론

I. 서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의사결정의 하나다. 고등학생들은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진학은 4-6년제 대학이나 2-3년제 전문대학 등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로이다. 고교 졸업 직후 진학에 실패하거나 보다 나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수를 통해 대학진학을 다시 준비하기도 한다. 취업은 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로서 창업이나 가업을 포함한다. 그밖에도 군입대를 하거나 가사와 육아와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한다. 취업도 교육이나 훈련도 아닌 상태(NEET)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교육팽창을 경험하였고,¹⁾ 특히, 대학진학률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 사회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누가 대학에 진학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비록 동일한 의미이지만 “누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더 타당해 보이게까지 한다.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가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먼저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허용되며 이는 교육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도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교육기회의 질적 계층화를 통해 계층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입장도 있다(Shavit & Blossfeld, 1993; Hout, 2004).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양립된 해석 이외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력의 준비 여부와 적성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당연시 하는 경향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할 진

1) 이러한 사실은 2008년 현재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83.8%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로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대학 입학 이후로 연기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진로 영역에서의 발달 및 성숙이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박제화”되었으며, 분절적이고 주변적임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은 (임언, 2008)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명망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면 그 이후의 진로는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학력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황여정, 2007). 이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직업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설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진로에 대한 결정은 대학 입학 이후로 연기해도 된다는 사회 전반적 인식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화가 심화되면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며, 학력과 노동시장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실업이나 하향취업과 같은 사회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인문교육에 대한 선호는 산업인력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의 부족을 가져오게 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과잉교육(over-education)의 위기 문제는 OECD의 한국 고등교육 보고서(2007)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변화(marginalized) 될 수 있는, 우려할만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中等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하게 됨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축소되게 되고, 이는 “이유 있는” 고등교육의 선택으로 이어져 고등교육이 보다 더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정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대학교육의 보편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로 이행할 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우리 사회는 무관심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데 인색하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시기까지 축적한 지식이나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역량의 개발이 정지 또는 지연되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이후의 진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또는 재능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 볼 기회 없이 모두가 다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진학한 청소년들은 대학에서 선택한 학과에 만족을 하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고, 대학교육이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에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도에 탈락하거나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다시 들이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청소년패널의 중2 패널은 2003년에 중학교 2학년 3,697명을 대상으로 제 1차 조사를 하였고, 2008년에는 제 6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6차년도 조사에서 패널의 대부분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진학을 하였거나, 취업 또는 대학진학 준비를 다시 하고 있으며 아주 적은 수의 패널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6차년도 조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응답한 패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선택 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유형 선택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개인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관계적 요인
4. 학습과 경험 요인

II.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진로 경로는 크게 교육적 전환과 직업적 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적 전환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동되는 교육의 수직적 전환 I 단계와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으로 이동하는 수직적 전환 II 단계가 있다. 그리고 직업적 전환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직업세계로 들어가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직접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경우, 그리고 고등교육을 마치고 직업세계로 들어가는 경우로 구분된다(오정란, 1998; 이지연 외 1998).

이 가운데 고등학교까지는 높은 진학률로 인해 거의 모든 청소년이 자동적으로 교육의 수직적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일반계와 전문계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전환기는 학교-직업세계 이행을 위한 매우 중요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생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계 학생은 졸업 후 직업세계로 들어가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다양한 진로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학을 더욱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취업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이미 2000년대 중반이후 80%를 넘어섰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률도 70%를 넘어서서 진학률 증가 현상은 일반계 고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교 졸업자들에게도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크게 대두함에 따라, 취업을 하는 고교 졸업자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고교 졸업자의 취업자의 규모는 1992년 27만여 명, 2000년 16만여 명에서 2008년에는 3만3천여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전문계 고교 졸업자 중 취업자 수는 1992년 22만여 명, 2000년 15만여 명이었고, 2008년에는 3만

여 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진로가 진학과 취업이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대학 진학으로 일원화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의 고교 졸업자들이 대학 진학을 당연시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은 학교에서 학교로의 수직적 이동의 경로가 아니라 학교에서 일 또는 그 밖의 다른 이동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선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관계적 요인, 그리고 학습과 경험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진로 선택 영향 요인들에 대해 진로 및 학교-직업세계 이행 관련 이론과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가설적인 수준에서 살펴본다.

1. 개인적 요인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진학과 사회 이동이 가능하다. 개방된 사회에서 개인은 더 이상 그가 이미 소속된 계급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교육 정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회적 이동을 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같은 업적적 요인이 교육적, 사회적 상승이동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은 학생 개인의 능력,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달려있다. 이 절에서는 업적주의적 사회규범 속에서 개인의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포부 수준, 그리고 진로관련 심리적 요인들은 진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지위 획득 이론

(1) 업적주의적 가정

현대 사회는 개인의 실력(merits)이 중시되는 업적주의(meritocracy) 사회이다(Young, 1958). 능력이 본위가 되는 개방적인 사회에서 사회 이동은 경쟁적 이동(contest mobility)의 양상을 띠게 된다(Turner, 1958). 모든 사람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모든 경쟁자는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며, 동일하게 취급된다. 누구에게도 특별한 혜택은 없다. 능력을 가진 자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승리자만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그 능력에 터한 경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대가로 갖가지 보상을 누리게 된다.

경쟁적 이동의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중요한 사회 상승 이동의 통로로서, 그리고 사회적 선발 기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업적주의 이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적 상승 이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의 분배는 능력 본위로 만들어지게 되며, 따라서 직업 구조의 하층에 위치하던 사람들도 능력만 있으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위 상승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성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실력과 업적(individual merits)을 강조하는 입장은 개인의 능력과 교육,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얻은 개인의 생산성(productivity)을 사회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한다. 즉,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는 타고난 능력과 교육 또는 훈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위계구조 속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는 사회적 상승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강 이동을 하느냐는 개인의 장점(실력) 또는 결점(merits or deficits)에 기인한다고 주장된다.

한마디로, 지위 획득 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의 성공을 나타내는 높은 직업 지위와 많은 소득은 개인의 능력과 교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성별 같은 귀속적 특성들이 개인의 사회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된다. 이것은 사회가 업적주의 사회로 변

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위 획득 모형

업적주의의 가정 아래 교육이 직업 지위 획득에 기여하는지를 검토하는 모형이 지위 획득 모형(status attainment models)이다. 직업 지위 획득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Blau & Duncan(1967)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 같은 가정배경 요인들과 본인의 교육 수준과 첫 번째 직업 등의 업적 관련 변수들이 ‘사회경제지수(socioeconomic index, SEI)’로 측정된 현재의 직업 지위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

Blau & Duncan의 직업지위획득에 관한 경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개인이 받은 교육과 초기 경험은 그의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배경요인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은 다른 배경 변수들에 비해 직업 지위 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아버지의 지위는 직접적으로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식의 성취에 기여하며, 학교교육 수준은 사회적 성공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결국, Blau & Duncan의 연구는 학교교육이 지위 세습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 상승이동 또는 사회적 출세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가 보다 개방되고 보편주의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위 획득 모형에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은 소위 ‘위스콘신 모형’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Sewell과 그의 동료들(Haller and Portes, 1973; Sewell and Hauser, 1975; Sewell, Haller and Portes, 1969)은 Blau & Duncan의 기본 모형에 교사나 부모의 격려, 친구의 영향, 개인의 포부 수준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그들은 지적 능력에 관한 변수들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가정배경 변수들은 부모와 교사 같은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를 통하여 직업적 포부와 기대 수준에 영향

을 주며, 학생의 지적 능력은 직접적으로 직업 지위 획득에, 그리고 학업수행도와 의미있는 타자에 의해 매개되어져 교육과 직업 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교육적 성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업적 포부는 직접적으로 직업적 성취 수준을 형성하는데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지위 획득 모형은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사회심리적 특성들이 진로와 지위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개인의 사회심리적 변수들의 도입으로 사회적 성취에 대한 설명은 보다 상세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교육이라는 업적적 변수들이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현대 사회가 업적주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

(1) 학업성적

일반적으로 능력은 교육적 성취를 통해 나타난다. 능력이 있는 자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통하여 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학업성적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또는 진학을 선택할 때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실제로, 학교 성적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와 고등학교에서 취업과 진학의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임천순 외, 1992).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선발은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대학진학을 원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적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전제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Crites(1978)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고, Phillips & Stomer(1983)는 학업성

취도와 의사결정 능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진로성숙을 예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wrence & Brown(1976)도 학업성취와 지적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진로관련 개념이 발달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김현옥(1989), 이병석(1992), 김대연, 강경찬(1995) 등은 학업성취가 진로성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신희경, 김우영(2005)은 일반계 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미래직업결정과 대학진학결정을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전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조아미(2000)는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은 실제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채창균(2009)은 학업성취도와 가정배경의 강한 상관관계를 지적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필연적으로 대학진학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김관용(1996)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고등교육으로 진학을 하기보다는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진로성숙 수준을 견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포부 수준

위스콘신 모형에서도 보았듯이, 개인의 교육적, 직업적 포부 수준은 교육적 성취와 사회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교육포부 수준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정숙, 황여정(2007)은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이 직업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기대교육수준이 높으면 상위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을 갖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숙(1983), 홍영란(1983), 최영준(1990), 김대연, 강경찬(1995) 등은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대부분 교육포부 수준이 직업포부

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교육포부 수준에 대한 의미와 해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희망이유와 희망교육 계열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3) 진로 관련 심리적 요인

진로와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자아정체감, 자존감, 자아개념, 자신감, 내외적동기, 불안 등과 같은 구인들이 연구되었다. 이 요인들은 독립변수로서 개인의 진로결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성숙은 종속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진로 관련 심리적 요인들을 연구한 김정숙, 황여정(2007), 김지혜(1998), 김현옥, 김충기(1989), 문승태, 김연희(2002), 이기학, 김명원(1998), 정윤경(2002), 조아미(2000), 조아미(2005), 황여정(2007)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성별, 계열, 학업성취도 등 많은 요인들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엇갈린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 심리적 요인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적 요인

능력주의(meritocracy)의 가정과는 달리 개인의 진로에는 성별이나 가정배경 등과 같은 귀속적 요인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비록 개인적 요인들이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조적 요인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업적적 요인들의 효과성은 개인의 귀속적 배경특성들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여성은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김병숙 외, 1998), 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차별화 되어있다면, 성별에 따른 진로는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가정 배경에 따라 학교 계열이 차별화(tracking) 된다는가 또는 미래 소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이건만, 1994). 그리고 학생의 가정 배경이 좋지 않다면 학교 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정 배경 또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마디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귀속적 배경요인들이 진로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성별, 가정 배경 등 개인의 귀속적 특성들 같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을 살펴본다.

1) 기회 구조 이론

(1) 갈등론적 관점

갈등론자들의 교육과 사회에 대한 관점은 업적주의를 가정하는 기능론적 입장과는 상반된다. 기능론자들이 사회의 조화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갈등론자들은 사회의 부조화와 집단 간의 갈등에 주목한다. 갈등론은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근본 원인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동태적인 이론이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회관은 갈등론적 관점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갈등론자들은 사회 불평등과 사회 이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현대 사회가 업적주의에 기초한 자유 경쟁 사회라는 기능론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 대신, 그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는 유지 또는 재생산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갈등론자들에게 있어서 사회 계급이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의 산물이다. 즉, 경제적 부, 정치권력,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자원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만큼 풍부하지 못하다. 따라서 인간 집단들은 이 제한된 자원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며, 서로가 서로를 정복한다. 그 과정에서 지배하는 집단과 지배 받는 집단이 생겨나고 사회는 계층화되

어진다.

갈등론자들에 의하면, 사회세력간의 갈등의 결과는 권력과 부로 나타난다. 그런데 개인과 가족의 상대적인 계급적 위치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기능론자들이 강조하는 직업의 사회적 중요도와 개인의 능력이나 훈련의 차이에 따른 계층화 설명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는 물적 소유권과 통제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권력과 부를 소유하지 못한 피지배집단은 지배 집단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제도화된 권력은 규범과 제재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 계층 구조를 존속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불평등이란 언제나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희생으로부터 얻어지고 그것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인간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강화되는 권력의 사회 구조가 낳은 이차적인 결과인 셈이다(Darendorf, 1959).

요약하면, 갈등론자들은 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이 사회계층과 불평등의 기원이 되며, 그 갈등의 결과로서 생겨난 집단 간의 불평등이 다시 새로운 집단 갈등을 일으킨다고 본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새로운 갈등과 불평등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마치 원추와도 같이 심화되어가고 사회의 계층질서는 더욱더 공고화되어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갈등론자들에게 있어서, 기능론적인 설명 방식으로서 필요에 의한 사회 계층화와 사회 이동을 위한 기초로서 업적주의적 가정은 지배집단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피지배집단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허위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셈이다.

(2) 기회 구조 모형

갈등론자들에게 있어서 학교 교육은 사회 이동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계층질서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재생산(reproduction)에 기여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학교는 사회의 개방성(openness)을 가로 막고 사회적 출세의 기회를 개인의 귀속적 특성들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하는 “위대한 마비자(great paralyzer of opportunity)”로서 작동한다(Pallas, 1995). 따라서

학교 교육의 사회 이동에의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학교는 현재의 계급 구조와 지배 집단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봉사할 뿐이라고 주장되어진다.

Bowles & Gintis(1976)는 재생산 이론적 관점으로 학교 교육과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는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계급에 기초한 성격적 특징들을 강화하여 불평등한 또는 층화된 사회 분업 구조를 그대로 복제해 낸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위치하는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등학교의 취업 준비반에서는 순종적이며 능률적인 노동자로서의 자세를 강화하는 반면, 사회의 상층부에 위치할 대학 진학반 학생들에게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킴으로서 사회 재생산에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갈등론자에게 있어서, 학교는 계층화된 사회 구조에 합당하는 노동력을 생산하며, 동시에 기존의 사회관계 유지에 필요한 의식, 성향, 가치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배계급의 도구일 뿐이다. 실제로 우등반, 대학 준비반 같은 고등학교의 상위 계열이나 고등교육 수혜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많은 수가 중산층 출신인 반면, 보충반, 직업 교육반, 취업 준비반의 학생들은 대부분 하층계층출신이라는 사실은 능력에 의한 성취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업적주의(meritocracy)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가 된다(Bennett and LeCompte, 1990).

현대 사회가 업적주의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회 이동에 관한 갈등론적 관점을 가진 몇몇 학자들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실증되었다. Wright & Perrone(1977)은 교육적 성취, 직업 지위, 가정 배경 보다는 사회 계급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교육과 소득의 관계 정도, 즉 교육투자 회수율은 고용주, 관리직, 노동자의 순서였으며, 성별로 여성은 남성 다음이었다. 또한, 그 연구는 그들의 계급 모형이 기존의 지위획득모형에 비해서 개인의 계급 구조 속에서 차지하게 되는 위치를 예측하는데 보다 설명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

마디로, 계급의 영향력은 교육의 영향력보다 강력하였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노동계급 출신자는 그들의 가정배경 때문에 상류계급 출신자들만큼 사회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 계급 출신 자녀는 동일하거나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중산층 자녀에 비하여 그들의 교육을 직업적 위세나 경제적 수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상층집단에게는 의미있게 작용하나 하층에는 큰 의미가 없었다.

Koo & Hong(1980)은 Write & Perrone의 계급 모형을 한국 사회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교육의 계급에 따른 수익률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육투자 수익률은 자본가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행상이나 일용노동자 같은 최저 수준의 노동자(marginal workers)는 최하의 교육 투자 수익률을 보였다. 교육은 또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자에게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신중관계급은 노동 계급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때 마다 두 배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한마디로, 계급은 개인의 수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셈이었다.

미국에서 여성과 유색인의 지위 획득에 관한 Rosenfeld(1980)의 연구는 중단적인 자료와 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진로 경로에 관한 역동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Rosenfeld 모형에 의하면, 여성이나 유색 인종들에 비해서 백인 남성은 지위 획득을 위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백인 남성은 백인 여성에 비해서 지위와 임금 면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보다 큰 투자 수익을 얻었다. 인적 자본의 평가에 있어서, 백인 여성과 유색인 남성은 노동 시장에서의 경력이 늘어감에 따라 백인 남성에게 비해 더욱더 불리하여졌다. 또한 여성에 있어서 직업지위 획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노동 시장에서의 경험, 얻어질 수 있는 일자리의 형태, 구직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성 차별 정도 같은 노동 시장 요인들이었다.

사회경제적 출신 배경이나 성(gender)과 같은 귀속적 특성에 의한 성공 기회 구조의 차별화에 관한 논의는 구조주의적 노동시장 연구에서 보다 명확하게 다루어진다. 노동시장 분단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노동 시장이 몇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의 일자리는 높은 임금, 좋은 노동 조건, 많은 승진기회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이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은 이러한 속성들을 결여한 일자리들로 구성된다. 이 이론은 또한 이차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 또는 그 시장에서의 지원자들은 주로 여성, 소수 인종, 저학력자들이며, 그들의 기술은 제대로 보상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이 부문에 고용된 후에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Edward, Reich and Gordon, 1975).

분단노동시장이론가들은 노동 시장에서의 개인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 결핍(deficits)이라는 주장 대신에 “기회 구조(opportunity structure)”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즉, 그들은 노동시장이 단일 경쟁 시장이 아니라 인종, 성, 교육 수준 같은 몇 개의 기준에 의해 분리되어져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 층으로 분단된 노동 시장은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회구조 모형(opportunity structure model)은, 직업 지위 획득에 관한 기능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개인의 진로에 있어서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는 진로 경로에 있어서 개인이 소속된 사회 계급이나 성별과 같은 귀속적 특성에 따라 기회 구조 자체가 다르게 분배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런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미 성별, 학력(學歷), 나이, 사회계급,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보다는 그들의 귀속적 특성에 따라서 진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불리한 조건 또는 속성을 가진 학생들의 진로는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게 된다.

2)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들(Lee,

1984; Winterowde & Krieshols, 1989; 권소희, 1996; 강경찬, 1997; 차재권, 1998; 조아미, 2000; 문승태 · 이상래, 2002; 김성환 · 전용석, 2005; 문승태 · 김연희, 2005; 채창균, 2009)은 대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차재권(1998)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진로탐색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황여정(2007)은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진로지도의 적극성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채창균(2009)은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결정의 유무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 간에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Gribbons & Lohnes, 1968; Crites, 1971; 이승국, 1999; 정윤경, 2005)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결정 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이승국(1999)은 사회가 급변하며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2) 성별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에 대한 이전 연구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따라 대상의 연령과 표본의 차이, 종속변수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남녀 간의 진로결정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Crites, 1973; 김대연 · 강경찬, 1995; 조아미, 2001; 박현주, 2006)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힌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김현옥, 1989; 이기학 · 김명원, 1998; 조아미, 2000)와 반대로 여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Herr & Cramer, 1996; 김현옥, 1989; 이기학 · 한종철, 1997; 문승태, 2002; 조

아미, 2005; 신희경, 김우영, 2005; 황여정, 2007)가 나타난다.

남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원인으로는 여학생들이 쉽게 전공 선택을 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여건을 들고 있다(황여정, 2007). 여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핸디캡이 적은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남학생들에 비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발달시기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조아미, 2005). 여학생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빨리 시작하기에 직업결정도 남학생보다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현실적이어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 빨리 습득한다는 견해도 있다(김현옥, 1989). 이기학과 한종철(1997)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3) 지역

지역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학생들을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김중운(2006)은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의 학생들에 비해 진로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과 참여, 협상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미래 직업을 생각하며 비교적 고수입의 직업을 선호하지만 농촌의 학생들은 주로 중학교에서부터 미래직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ewell(1964)은 학생의 거주지역이 교육포부 및 직업선택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지위의 직업을 획득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숙과 황여정(2007)은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획득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학생

에 비해 고등학생은 대부분 거주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문화 인프라 등 진로결정에 여러 가지 효과가 혼재할 수 있다.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환경이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출신고교 유형

출신고교 유형도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원섭 등(1999)은 우리나라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성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교육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일반계 고교는 전문계 고교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며, 그에 따라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도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유형에 따라 교육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고교 유형 자체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계 고교는 직업준비를 위한 전문교육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일반계 고교는 주로 대학진학 준비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고교 유형 그 자체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반계와 전문계 고교는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국내 연구에서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들(이기학 · 한종철, 1997; 이기학 · 김명원, 1998; 조아미, 2000; 문승태 · 이상래, 2002; 문승태 · 김연희, 2002; 이재창 · 박미진 · 김수리, 2005; 조아미, 2005)이 있다. 조아미(2005)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직업결정 비율이 낮고 중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과거보다 진로선택의 폭이 넓어진 이유를 들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전문계 학생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과 진학 등 고민을 하게 되므로 이 시기 직업결정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 신재순(1998), 김홍규(1997), 이은희(2003) 등

은 전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주로 가정환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신희경, 김우영(2006)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전문계 학생들이 가정환경보다는 학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계열별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고 있는데 일반계 학생들에게는 가정환경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전문계 학생들에게는 가정변인보다는 학교변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채창균(2009)은 전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문계 내의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진로결정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전공계열별로 취업에 대한 효과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 노동시장 조건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선택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는 고용환경의 변화, 경기적 요인,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과 교육투자수익률이 대표적인 요인이 된다.

먼저, 근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한 생산양식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도 고용의 유연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직업세계의 변화도 더욱 빨라져 기존의 직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는 신규 학교졸업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더 높은 직업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신규 학교졸업자들이 직업세계에 들어간 이후에도 노동력의 이동이 많아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의 노동력이 더 높은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는 점점 더 학력수준을 높이는 진학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경기적 요인은 진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노동시장 요인이다. 예를 들어, 창고이론(warehouse theory)에서는 경기가 침체상태일 때 학생들은 일자리가 부족한 노동시장에 들어가기보다는 학교에 머무르거나 진학

을 하여 경기가 호전되기를 기다린다고 본다. 이러한 진로에의 경기적 요인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임금은 학생들이 취업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자신이 향후 노동시장에서 어떤 직장을 구해야할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노동시장 지표가 된다. 즉 임금은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신호(signal)의 역할을 한다. 학교에 기업의 취업 의뢰가 있으나 이들 의뢰는 많은 경우 소위 3D 업종의 직장으로 대부분 임금수준이 낮다. 이때 학생들은 이러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 나쁘고 임금도 낮은 곳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노동시장의 중요한 신호기능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교육의 투자수익률 또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육의 투자수익률이 통상적으로 임금함수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에서 앞의 임금의 신호기능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수익률은 임금 그 자체에 비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적인 변인이 된다. 임금이 교육에의 투자수익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변수임에는 틀림없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또한 금전적인 소득 이외에 고등교육이 가져다주는 비금전적인 수익으로서 사회적인 위세, 명예 등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취업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상실되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게 되고, 그럴 경우 학교-직업 세계 이행은 지연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변수들은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상황은 곧 진로결정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관계적 요인

능력이나 심리적 특성 같은 개인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 같은 개인의 귀속적 특성에 의한 구조적 요인만으로는 개인의 진로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다. 앞선 모형들에서도 일부 언급되었던 부모나 교사, 친구 같은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는 진로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들과의 관계 형성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관계들은 진로에 관한 정보의 양과 질에서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개인의 진로 결정은 그런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자본과 진로 정보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 또는 구조적 특성 이외에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 특성 등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1) 사회적 관계망 이론

(1) 관계론적 접근

사회적 관계망 이론은 관계론적 접근방식(*relational approach*)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이론적 관점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다(장원섭, 1997). 사회적 관계망 이론은 사회구조들이 개인 또는 조직들로 대변되는 사회적 행위자들(*actors*) 사이의 관계들로 구성된 관계망에 의해서 개념화되고 분석되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관점은 심리학에서 전형적으로 가정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원자론적 접근(*atomistic approach*)을 거부한다. 개인주의적 관점은 개별행위자의 선택과 행동을 다른 행위자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은 행위자가 ‘놓여있는(*embedded*)’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다(Knoke & Kuklinski, 1982). 사회적 관계망 이론은 아무런 구조적 제약도 없는 개인의 주체성만을 강조하는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개별행위의 구조적 제한성을 가정한다. 즉,

관계망 안에서 차지하는 행위자의 위치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전체로서 관계망들의 구조는 관계망 안에서 펼쳐지는 행위의 과정들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견지한다(Hedstrom & Swedberg, 1994).

그렇다고 관계망 이론이 구조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이론은 행위자의 범주적 속성(categorical attributes)만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관점을 넘어선다. 미시적 상호작용 이론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관계망 이론은 개인의 행위에 주목한다. 구조주의적 사회학에서 무시되어왔던 “개별 행위자를 연구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다(bringing individuals back in)”(Breiger, 1990). 그러면서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진다. 즉,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는 사회속의 다른 개인이나 조직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관련된다.

결국 관계론적 접근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개별 행위자는 많은 다른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사회체제 안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른 행위자들은 또 다른 행위자들의 지각, 신념, 의사결정과 기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사회적 관계망 이론은 개인이나 조직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을 기술하고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행위자들 간의 구체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관계 또는 그들 간에 연결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그 관계망 구조가 개별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결국 관계망 구조 그 자체와 관계망 내에서의 개별행위자의 위치는 개인과 전체 체제 모두에게 중요한 행동적, 심리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Knoke & Kuklinski, 1982).

한마디로, 관계망 이론의 관점은 체제 내의 사회적 행위간의 유형화된 관계들이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constraining dimensions)과 개별행위자들이 그들의 관계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측면(enabling dimensions)을 동시에 탐구한다. 즉,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의 구체적인 관계망 안에서 그 행위를 제한받고 그들의 관계망이 재생산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주체로서의 역할 또한 강조한다(Granovetter,

1973; Emirbayer & Goodwin, 1994).

(2) 사회적 관계망 모형

앞에서 살펴본 지위획득모형과 기회구조모형은 모두 진로 또는 학교-직업 세계 이행의 시장 모형(market model)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모형은 공통적으로 진로 경로를 설명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반면, 진로에 관한 사회적 관계망 모형은 시장 기제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의 두 모형에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적 관계망 모형은 진로 선택과 이동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정보의 질, 신뢰성, 영향력 및 그 흐름에 주목한다. 즉, 학교 졸업자의 진학 또는 취업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제삼자에 의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s)의 역할에 주목한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 모형의 주요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 모형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학과 취업에 대한 정보의 흐름(flow of information) 같은 역동적인 요소들을 강조한다. 그 이론은 진로 기회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성공적 취업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 모형은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 정보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정보가 의미를 가지게 되고 신뢰되어지는 방식을 기술한다. 정보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조건을 고려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 조건에 따라 똑같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효과는 달라진다. 어떤 정보는 보다 더 신뢰되어지는 반면, 다른 정보는 그렇지 못하다. 관계망 모형에 의하면, 만약 어떤 정보가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있다면 그것은 보다 더 잘 교환되어지고, 더욱 더 신뢰되어지며, 따라서 보다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게 된다(Rosenbaum, et al., 1990; Uzzi, 1996).

실제로, 진로에 관한 정보 구하기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을 때, 사회적 관계망은 도구적 관계로서 특징지어진다. 왜냐하면, 한 개인은 진로 선택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개인이나 조직을 도구적 수단으로서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도구적 행위를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관계망(networks as social resources of instrumental action)”의 역할이 강조된다(Lin, 1982).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관계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함께 지역의 인적 자원이나 자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자본은 집단 간에 또한 집단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가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관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한 개인이 소유한 특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유되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집단의 관습이나 문화의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회적 자본 개념화는 여러 선구적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르디외(1986)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관계망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곧, 집단에서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 또는 상징을 계속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보증된다. 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경제·상징적인 자본의 양에 비례하며 특히 상류사회의 모임에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집적시키고 이를 통해 최대의 혜택을 누린다. 집단내의 연결망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구축하고자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관계망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사회관계를 수립하거나 재생산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투자전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제도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교환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상징적 구성물에 의해서 신성화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 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집단과 그들의 존재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교행위는 집단을 지속시키고 끊임없는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볼 수 있으며 매우 생산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집단이 가지는 제도화된 위임체계는 집단 내의 규범을 이행하고 집단의 존속을 위해 구성원들이 노력하도록 한다.

콜만(1988)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과 경제학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학문분야의 관점을 통합하려는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구조의 이해와 합리적 선택 이론을 통합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다(구혜정, 2002). 제임스 콜만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형태와 모습 그리고 구성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공통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둘째는 그 구조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특정한 행위나 활동을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이와는 달리, 특정 행위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특정 구성원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자본의 형태는 ‘의무가 반드시 수행된다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신뢰성 정도’와 ‘실제로 의무가 지켜지는 정도’에 의존한다. 신뢰성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유용한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바탕으로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주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높은 의무감을 가진 사회가 보다 큰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정보에의 잠재적 접근성은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중요한 형태이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비용이 요구된다. 보다 효과적인 정보습득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인들과의 상호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사회관계가 정보 획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범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한다. 규범 또는 효과적인 제재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집단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개인의 희생은 사회적 지원 또는 명예 등을 통해서 보상된다. 이 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의 요건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회구조의 폐쇄성이다.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연결망이 어느 정도로 폐쇄적이냐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성과의 정도가 결정되는데 구성원들의 연결망이 아주 폐쇄적이면 구성원들 간의 행동을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성과 또한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폐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신뢰가 더 잘 생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한 사회구조 속에 자발적인 조직이 존재한다면 이는 구성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조직이 이루어 놓은 새로운 문화, 또는 사회적 기능은 다른 관계에서까지 활용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은 그것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그 형태가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정도가 낮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관해 과소투자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사회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진로에 관한 의사 결정이라는 개인의 목적 추구 행위는 구체적인 사회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관계망의 이용은 하나의 사회적 자원이 되고, 따라서 그것을 통한 정보는 보다 더 신뢰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2)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들

개인은 관계를 통해 학습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며 다양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학생 개인이 일상에서 맺는 관계적 요인은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크게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외의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들이 어떠한 정보를 주는지, 어떻게 지지해주는지 등에 따라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정규(2006)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진로발달에 부모의 지지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청소년기에는 책임성과 자율성이 동반된 진로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결정을 더 확실하고 자신감 있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4가지 지지 중 평가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김대연과 강경찬(1995)은 부모의 영향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으며 김희수(2005)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송민진(2006)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신희경과 김우영(2005), 허정철(2008)은 부모와의 대화나 의사소통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혜은(2008)은 여학생은 어머니의 지지가 있을 때, 남학생은 아버지의 지지가 있을 때,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며 진로결정에 대한 힘을 얻는다고 밝혔다.

친구와의 관계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다. 유영미, 문승태(2005)는 부모의 지지 뿐 아니라 친구의 지지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며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가영과 김신영(2009)은 청소년의 사회연결망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성숙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학교친구애착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형제, 친척, 친한 친구들로 이루어진 강한 연결망보다는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관계나 이웃, 선후배 등의 약한 연결망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진로의 발달을 돕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신희경, 김우영(2005)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부모보다는 학교의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

하며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강경찬(1997), 조아미(2005) 역시 교사가 진로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4. 학습과 경험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그리고 관계적 요인은 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요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진로 선택을 위해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지금 살펴볼 학습과 경험 요인은 진로 선택을 위한 개입적 방법(interventions)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그 밖의 다양한 진로관련 학습과 경험이 개인의 진로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진로교육은 그 자체로 그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화된 진로 준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일의 경험들 역시 직업세계에 대한 준비 정도와 직업의식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앞 절들에서 학교에서의 성적과 학교 유형 등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았고, 이 절에서는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진로교육과 학교 밖에서의 비형식적 또는 무형식적 학습과 일 경험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도와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하고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종합적인 활동을 말한다. 한마디로, “진로교육이란 교육과 일의 세계를 연관시키기 위한(to relate education to the world of

work) 것으로 개인이 일생동안 수행하게 되는 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교육(education as preparation for work)으로 개인에게 일이 가능하고(possible), 의미 있고(meaningful), 만족스럽게(satisfying) 하는 것이다”(정철영, 2004). 결국, 진로교육은 개인의 특성과 일의 세계를 교육적으로 잇는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진로교육은 직업적 발달 내지 성숙에 관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직업교육이 취직을 목전에 두고 실시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반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의 직업적 발달에 대응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적절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따라 발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증적이고 계량화된 진로적성검사들이 발명되면서 과학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신념도 대두하였다(참고: Herr, 2001).

따라서 진로교육의 개념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에는 주로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과 같은 표준화 검사 도구가 활용된다.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획득하게 된다. 결국,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진로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이유를 가지게 한다. 둘째,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현명히 선택하게 한다. 셋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게 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일의 세계에 진출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일에 만족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결국, 진로교육이란 일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일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정철영, 1999). 진로교육은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또한, 그럼으로써, 국가사회적으로도 균형있는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게 된다(장석민, 1999).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에 관한 여러 이론에 기초하였다(참고: 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주요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교육에 관한 특성요인이론(trait-factor theory)은 개인의 생득적인 적성, 지능,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을 진로와 연결시킨다. 즉, 진로 발달은 개인의 특성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성검사, 흥미검사, 직업선호검사와 같은 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밝히고 그에 맞는 직업 선택을 권고한다(Parsons, 1909). 한마디로, 진로교육은 검사를 통해 밝혀진 개인의 특성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그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주고자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통적 진로교육이론인 진로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의하면 개인의 진로선택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대체로 인간의 성장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게 된다. 인간의 진로발달은 환상기(11세이전), 잠정기(11세~17세)와 현실기(17세이후)를 거친다거나(Ginzberg, 1951), 성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를 지난다(Super, 1953)고 설명한다. 이런 진로발달단계를 상정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현실에 참여한 안정기의 성인에게보다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청소년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밖에도 전통적인 진로교육에서는 개인의 욕구나 인성에 따른 직업선택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인간의 진로 성향을 유형화하여 그에 맞는 직업들을 제시하고 지도한다. Holland(1966)가 R(현실형), I(탐구형), A(예술형), S(사회형), E(기업형), C(관례형) 등으로 개인의 진로유형을 구분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인 이론들에 근거한 진로교육은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지도를 강조하는 텍스트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하였다.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진 전통적 진로교육은 직업과 관련된 교과목, 진학위주의 진로상담, 직업 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각종 심리검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과 진로에 대해 가르치고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학교 진로교육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진로상담, 학교행사 등으로 구분한다. 교과활동은 각 교과목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 또는 배경적 지식을 부분적으로 습득하는 경우이다.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특별활동은 주로 담임교사에 의한 학급활동과 직업과 관련된 클럽활동을 포함한다. 진로상담을 통한 진로지도는 학생들이 당면하는 진학과 직업선택에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정보의 제공과 진로계획, 그리고 진로의사결정을 돕는 일이다. 학교행사를 통한 진로교육은 진로의 날 또는 진로주간으로 불리는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강조기간을 정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학생들은 초청강연, 심리검사, 영상자료 감상,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교육을 받게 된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몇몇 예외적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와 정보자료들에 기초한 일의 세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진로교육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진로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호영(2007)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에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 교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 교과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과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진로와 직업교과를 선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하여 진로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는 그 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교과가 형식적으로만 개설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입시 과목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이 남는 교사들이 성의 없이 교육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교과 운영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언, 2008).

2) 학교 밖에서의 진로 학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중심의 진로교육과는 달리, 근래에는 학교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여기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진로를 학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YMCA와 문래청소년지원센터 등은 실천적 탐색에 의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

로, 청소년 직업탐험대는 “원하는 일과 꿈꾸는 미래가 있는 청소년과 직업인의 만남”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직업인이나 전문가와 만나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약 20명의 직업인 혹은 전문인들이 청소년들의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는 방학 동안 2박3일 캠프로 진행되는 틴즈테크노 원정대, ‘사람(人)과 일터(터)를 같이 본다(view)’는 뜻으로 각 직종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인터View’, 그리고 보고대회인 직업탐험 알리미 등이 있다.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여름 및 겨울방학 중 2시간씩 5회로 총 10시간 동안 실시된다. 그 내용은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탐색, 직업정보찾기, 진로탐색검사 실시 및 해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되어서 학기 중에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교 CA수업시간을 활용하여 1년에 6~8회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 4개의 학교에서 각각 15여 명씩 선발하여 총 60여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진로탐색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각자 여러 종류의 직업을 조사해온 다음, 게임을 통해서 서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직업을 아는지, 그리고 그 직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본다. 이 때 ‘당연하지’게임을 하거나, 직업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놀이를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다.

청소년 동아리인 ‘커리어 디자이너’활동도 있다. ‘커리어 디자이너’란, 진로를 스케치하듯 그려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청소년 동아리이다.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직업의 전문가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인터뷰하고, 이때거진 및 myway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여자 중·고등학생 5~11명으로 구성되어서 2004년 8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업 전문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인터뷰했던 전문 직업은 여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파티 플래너, 한의사, 정신과 의사, 가수, 쇼호스트, 방송 작가, 번역가이외에도 동물원 사육사, 비

행기 조종사, 경호원, 게임 프로그래머, IT분야의 연구원, 경찰서 경사 등이 있다. 그리고 방문할 전문가를 정할 때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면서 동시에 향후 전망이 좋을 것으로 발표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방문이 이루어졌다.

YMCA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는 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익보호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을 하는 2가지의 활동으로 크게 구성된다. 먼저, 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전화나 이메일로 피해사례를 상담해주거나 피해 학생을 노동부와 직접 연계시켜주는 작업을 한다. 다음으로,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취업교육으로는 'TEENS work school'을 들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일하기와 돈 벌기'로 경제 개념의 형성, 일에 대한 가치관 점검, 나의 소비생활 점검하기, 인생 설계, 용돈 계획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텍스트 중심의 교실 진로지도를 넘어서 컨텍스트 중심의 탐험적이고 체험적인 학습을 의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행하는 진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연구방법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 기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6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2003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를 성공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3,697명의 93.3%인 3,449명이었다.

2차년에는 청소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의 92.4%인 3,18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3차년도 자료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의 90.6%인 3,12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4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대상자의 90.5%인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5차년도 자료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의 86.0%인 2,96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최종 조사인 6차년도 자료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의 82.1%인 2,83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2.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다항로짓 분석, 이항로짓 분석, 위험률 분석이 실시되었다. 기술통계는 본 연구의 통계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에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다항로짓분석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각 진로 유형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항로짓분석은 대학에 진학자에 한해 실시되었는데, 2-3년제 대학 진학과 4-6년제 선택을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진로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사용된 다항로짓분석과 이항로짓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월가구소득, 부 최종학력, 학업성적, 교육포부, 진로성숙도, 진로교육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 등이다.

위험률 분석은 ‘재순환 방법’(method of recycling)을 통한 확률변화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에 기반을 둔 방법이 변인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분석에 사용된 모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상확률의 변화로 측정하기 위해 위험률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TATA 10을 사용하였다.

2) 주요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주요 종속변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 유형이며, 진로 유형 구분은 **KYPS 6**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현재 진로상황 및 향후 진로설정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5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은 (1)대학 진학, (2) 재수, (3) 취업, 4)취업준비, 5) 비경제활동인구 등 다섯 유형으로 나누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독립변수에는 월평균 가구수입, 부 최종학력, 학업성적, 직업포부, 진로성숙도, 성별, 고등학교 계열, 진로교육 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 등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학생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여학생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구설문지에 포함된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교육년수로 환산²⁾하여 사용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구의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 가구소득과 5차년도 가구소득을 합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다.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누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가리킨다. 예체능 고등학교와 과학, 어학 분야의 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목적고 중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포함시키고, 그 밖의 특수고등학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국어, 영어, 수학 영역에서의 반 내 성적 정도에 대해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본인의 교육기대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교육년수로 환산³⁾하여 사용하였다. 교육포부는 4차년도와 5차년도에서 응답한 학생 자신의 교육포부 수준을 교육년수로 환산⁴⁾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는 4차년도와 5차년도의 진로성숙도를 묻는 7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을 낸 값을 사용하였다. 진로교육 참여는 3, 4, 5차년도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유형의 수를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동아리활동 참여도 진로교육 참여와 유사한 방향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2) 중졸=9, 고졸=12, 2-3년제 대졸=14, 대졸=16, 석사=18, 박사=20으로 환산

3) 중졸=9, 고졸=12, 초대졸=14, 대졸=16, 대학원졸=18로 환산

4) 중졸=9, 고졸=12, 2-3년제 대졸=14, 대졸=16, 석사=18, 박사=20으로 환산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학한 대학의 유형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비교를 위해 1) 2-3년제 대학진학 집단과 (2) 4-6년제 대학진학 집단으로 나누어, 이 두 집단을 구분 짓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항로짓분석의 독립변인은 5가지 진로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과 동일한 독립변인을 사용하였다.

위험률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고졸(12년)을 기준으로 대졸(16년)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교육포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 고졸(12년)을 기준으로 대졸(16년)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 간 비교는 남녀를 비교하였고, 고등학교 계열은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진로교육 참가가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진로교육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경우와 2가지 유형의 진로교육을 받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참가가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2가지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동아리활동 참가가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에 한번 도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으로 2가지 유형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집단을 비교하였다.

IV. 연구결과

1.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유형 결정에 대한 기초분석
2.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3. 2-3년제 대학 vs 4-6년제 대학 로짓 분석
4. 위험률 분석

IV. 연구결과

1.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유형 결정 요인에 대한 기초분석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진학에 진학하여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비율이 79.3%,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13.28%,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6%, 비경황 상태로 판단되는 비율이 1.8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92.58%에 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진학에 재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진로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대학교육을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재수를 하는 비율은 남자가 14.79%, 여자가 11.90%로 나타나, 재수하는 남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비율은 여자(5.53%)가 남자(2.5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경황 상태인 비율은 남자(78.43%)가 여자(21.5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고등학교 계열 간 차이를 검토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83.04%가 대학에 진학했으며, 14.78%가 대학진학 준비를 한다고 응답하여, 97.82%가 대학에 진학을 했거나 대학을 진학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의 경우 대학을 진학한 비율이 70.06%,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6%로 나타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진학률과 재수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수를 하는 비율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취업한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계 졸업자 중 0.94%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계 졸업자 중 14.69%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졸업자들의 진로 유형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IV-1〉 기술통계분석 결과 1

종속변수		전체	대학진학	재수	취업	취업준비	비경활
측정항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734 (100.00)	2,168 (79.3)	363 (13.28)	112 (4.1)	40 (1.46)	51 (1.87)
성 별	남	1,305 (47.73) (100.00)	1,026 (47.32) (78.62)	193 (53.17) (14.79)	33 (29.46) (2.53)	13 (32.5) (1.00)	40 (78.43) (3.07)
	여	1,429 (52.27) (100.00)	1,142 (52.68) (79.92)	170 (46.83) (11.90)	79 (70.54) (5.53)	27 (67.50) (1.89)	11 (21.57) (0.77)
고 교 계 열	일반계	2,016 (79.16) (100.00)	1,674 (81.82) (83.04)	298 (91.13) (14.78)	19 (19.59) (0.94)	12 (36.36) (0.60)	13 (29.55) (0.64)
	전문계	531 (20.851) (100.00)	372 (18.18) (70.06)	29 (8.87) (5.46)	78 (80.41) (14.69)	21 (63.64) (3.95)	31 (70.45) (5.84)

진로유형별 부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재수를 하는 집단의 부 최종학력이 14.36년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진학 집단이 13.29년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 최종학력이 가장 낮은 집단은 비경활 집단으로 11.18년으로 나타났고 취업준비 집단이 11.26년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재수 집단이 399.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진학 집단이 327.64만원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반해 취업준비집단

은 월가구 소득이 193.2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취업집단은 226.42만원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낮았다.

학업성적은 재수집단이 3.1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진학집단이 3.01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은 비경활집단으로 2.56으로 나타나 가장 낮았으며, 취업준비집단이 2.63으로 두 번째로 낮았고, 취업집단은 2.76으로 나타났다.

교육포부수준을 살펴본 결과 재수집단이 16.53년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학진학집단이 16.09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포부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취업준비집단으로 13.45년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집단이 13.83년으로 두 번째로 낮았으며, 비경활집단은 취업준비집단에 비해 1.4, 취업집단에 비해 1 가량이 높은 14.82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는 재수집단과 대학진학집단이 3.9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진로성숙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비경활집단으로 3.57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낮은 집단은 취업준비집단으로 3.65로 나타났다. 취업집단의 진로성숙도는 3.83으로, 대학진학집단이나 재수집단보다는 낮았지만 취업준비집단이나 비경활집단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진로교육참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참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유형의 평균 개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평균 2.66개에 참가한 취업집단으로 나타났고, 대학진학집단 2.38개, 재수집단이 2.37개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집단은 1.97개로 가장 낮았고, 비경활집단은 2.05개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참가한 자원봉사활동 유형의 평균 개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평균 0.97개에 참가한 재수집단으로 나타났고, 취업집단 0.87개, 대학진학집단이 0.86개 순으로 나타났다. 비경활집단은 0.37개로 가장 낮았고, 취업준비집단은 0.38개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동아리활동 참가에 있어서는 참가한 동아리활동 유형의 평균 개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평균 1.72개에 참가한 취업집단으로 나타났고, 대학진학집단 1.67개, 재수집단이 1.61개 순으로 나타났다. 비경활집단은 0.86개로 가장 낮았고, 취업준비집단은 1.53개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준비집단

과 비경활집단이 진로교육이나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기술통계분석 결과 2

종속변수	전체	대학진학	재수	취업	취업준비	비경활
측정항목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부 최종학력	13.31 (2.95)	13.29 (2.85)	14.36 (2.80)	11.40 (2.92)	11.26 (3.23)	11.18 (3.11)
가구 월소득	330.03 (148.72)	327.64 (134.60)	399.69 (213.36)	226.42 (99.05)	193.20 (105.75)	247.86 (96.72)
학업성적	2.99 (0.61)	3.01 (0.60)	3.13 (0.58)	2.76 (0.58)	2.63 (0.66)	2.56 (0.51)
교육포부	15.97 (1.44)	16.09 (1.24)	16.53 (1.22)	13.83 (1.55)	13.45 (1.52)	14.82 (1.85)
진로성숙도	3.85 (0.56)	3.92 (0.56)	3.92 (0.56)	3.83 (0.56)	3.65 (0.64)	3.57 (0.56)
진로교육참가	2.40 (1.69)	2.38 (1.62)	2.37 (1.54)	2.66 (2.17)	1.97 (1.80)	2.05 (2.06)
자원봉사 활동 참가	0.84 (1.29)	0.86 (1.30)	0.97 (1.30)	0.87 (1.79)	0.38 (0.75)	0.37 (0.66)
동아리활동 참가	1.61 (1.67)	1.61 (1.67)	1.69 (1.71)	1.72 (1.63)	1.53 (1.49)	0.86 (1.07)

2.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진학 집단과 재수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 월소득, 교육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또한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 재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성별, 고등학교 계열, 진로교육 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집단과 대학진학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월소득, 교육포부, 성별, 고등학교 계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취업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녔을 경우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녔을 경우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 교육수준,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진로교육 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집단과 취업준비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월소득과 교육포부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취업준비 상태에 있기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성별, 고등학교 계열, 진로교육 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집단과 비경활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 성별, 고등학교 계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비경활 상태에 있기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많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보다 일반계 고등학

교를 다녔을 경우 비경황 상태에 있기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가구 월소득, 부 최종학력, 교육포부, 진로성숙도, 진로교육 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집단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는 <표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3>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대학진학집단을 기준으로

항목		계수	표준오차	z값	유의도
재수/ 대학진학집단 기준	월소득	0.82	0.23	3.60	0.00
	부 교육	0.04	0.03	1.25	0.21
	학업성적	0.08	0.12	0.62	0.53
	교육포부	0.18	0.07	2.40	0.02
	진로성숙도	0.11	0.14	0.83	0.41
	성별	-0.20	0.15	-1.36	0.17
	고등학교 계열	-0.34	0.27	-1.24	0.22
	진로교육	0.01	0.05	0.31	0.76
	자원봉사활동	0.05	0.06	0.90	0.37
	동아리활동	0.00	0.04	-0.05	0.96
	상수	-10.72	1.54	-6.95	0.00
취업/대학진학 집단 기준	월소득	-0.87	0.32	-2.72	0.01
	부 교육	-0.04	0.05	-0.79	0.43
	학업성적	-0.53	0.29	-1.82	0.07
	교육포부	-0.84	0.14	-6.16	0.00
	진로성숙도	-0.05	0.27	-0.18	0.86
	성별	1.37	0.35	3.94	0.00
	고등학교 계열	2.07	0.37	5.54	0.00
	진로교육	-0.07	0.09	-0.70	0.48
	자원봉사활동	0.14	0.11	1.25	0.21
	동아리활동	0.17	0.09	1.89	0.06
	상수	14.38734	2.717965	5.29	0.00

취업 준비/대학진학 집단 기준	월소득	-1.40	0.58	-2.41	0.02
	부 교육	-0.06	0.08	-0.67	0.50
	학업성적	-0.14	0.60	-0.24	0.81
	교육포부	-0.85	0.16	-5.32	0.00
	진로성숙도	-0.26	0.63	-0.41	0.68
	성별	0.41	0.57	0.72	0.47
	고등학교 계열	0.59	0.51	1.18	0.24
	진로교육	-0.14	0.17	-0.82	0.41
	자원봉사활동	-0.31	0.43	-0.73	0.47
	동아리활동	-0.01	0.14	-0.05	0.96
	상수	18.13	4.44	4.09	0.00
비경활/대학진 학집단 기준	월소득	-0.04	0.44	-0.10	0.92
	부 교육	-0.10	0.10	-1.00	0.32
	학업성적	-1.22	0.40	-3.06	0.00
	교육포부	-0.11	0.16	-0.70	0.48
	진로성숙도	-0.73	0.48	-1.50	0.13
	성별	-1.50	0.58	-2.60	0.01
	고등학교 계열	2.40	0.60	4.03	0.00
	진로교육	0.01	0.12	0.12	0.91
	자원봉사활동	-0.45	0.25	-1.79	0.07
	동아리활동	-0.07	0.17	-0.43	0.67
	상수	4.85	3.64	1.33	0.18

Log pseudo likelihood=-968,540
Number of Obs.=1837.000
Wald Chi2(40)=307.406
Pseudo R2 = 0.177***

재수집단과 취업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진학집단과의 비교결과와 마찬가지로 월소득, 학업성적, 교육포부, 성별, 고등학교 계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취업을 하기보다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보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 취업을 하기보다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 최종학력, 진로성숙도, 진로교육 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집단과 취업준비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가구 월소득과 교육포부로 나타났다. 가구월소득과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취업준비 상태에 있기보다 재수를 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재수집단과 비경활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 성별, 고등학교 계열, 자원봉사활동 참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활동을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가 비경활 상태에 있기보다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월소득, 부 최종학력, 교육포부, 진로성숙도, 진로교육참가, 동아리활동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대학진학준비(재수)집단을 기준으로

항목		계수	표준오차	z값	유의도
취업집단/재수 집단 기준	월소득	-1.69	0.39	-4.33	0.00
	부 교육	-0.08	0.06	-1.34	0.18
	학업성적	-0.61	0.31	-1.94	0.05
	교육포부	-1.02	0.16	-6.46	0.00
	진로성숙도	-0.16	0.30	-0.55	0.59
	성별	1.57	0.37	4.19	0.00
	고등학교 계열	2.41	0.45	5.31	0.00
	진로교육	-0.08	0.11	-0.77	0.44
	자원봉사활동	0.09	0.12	0.71	0.48
	동아리활동	0.17	0.10	1.78	0.08
	상수	25.10	3.13	8.02	0.00
취업준비집단/ 재수집단 기준	월소득	-2.22	0.62	-3.56	0.00
	부 교육	-0.09	0.09	-1.07	0.29
	학업성적	-0.22	0.61	-0.36	0.72
	교육포부	-1.03	0.18	-5.81	0.00
	진로성숙도	-0.37	0.65	-0.58	0.56

비경활집단/ 재수집단 기준	성별	0.61	0.59	1.04	0.30
	고등학교 계열	0.93	0.57	1.64	0.10
	진로교육	-0.15	0.17	-0.87	0.38
	자원봉사활동	-0.36	0.43	-0.84	0.40
	동아리활동	-0.01	0.15	-0.04	0.97
	상수	28.84	4.70	6.13	0.00
	월소득	-0.86	0.49	-1.75	0.08
	부 교육	-0.14	0.11	-1.33	0.18
	학업성적	-1.29	0.41	-3.14	0.00
	교육포부	-0.29	0.18	-1.66	0.10
	진로성숙도	-0.84	0.50	-1.68	0.09
	성별	-1.30	0.59	-2.20	0.03
	고등학교 계열	2.74	0.65	4.24	0.00
	진로교육	0.00	0.13	-0.01	1.00
	자원봉사활동	-0.50	0.25	-1.96	0.05
	동아리활동	-0.07	0.17	-0.41	0.68
	상수	15.57	3.92	3.97	0.00

취업집단과 취업준비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계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 보다 취업준비 상태일 가능성 보다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 월소득, 부 최종학력, 학업성적, 교육포부, 진로성숙도, 성별, 진로교육 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집단과 비경활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포부, 성별, 자원봉사 활동 참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취업을 하기보다 비경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자가 남자보다 취업보다 비경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경우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보다 비경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 최종학력,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고등학교 계열, 진

로교육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취업집단을 기준으로

항목		계수	표준오차	z값	유의도
취업준비집단/ 취업집단 기준	월소득	-0.53	0.62	-0.86	0.39
	부 교육	-0.02	0.09	-0.18	0.86
	학업성적	0.39	0.64	0.61	0.54
	교육포부	-0.01	0.19	-0.07	0.95
	진로성숙도	-0.21	0.66	-0.32	0.75
	성별	-0.95	0.62	-1.53	0.13
	고등학교 계열	-1.48	0.60	-2.48	0.01
	진로교육	-0.07	0.18	-0.39	0.69
	자원봉사활동	-0.45	0.43	-1.04	0.30
	동아리활동	-0.18	0.15	-1.17	0.24
	상수	3.74	4.87	0.77	0.44
비경활집단/취 업집단 기준	월소득	0.82	0.52	1.60	0.11
	부 교육	-0.06	0.11	-0.57	0.57
	학업성적	-0.69	0.49	-1.41	0.16
	교육포부	0.73	0.21	3.45	0.00
	진로성숙도	-0.68	0.54	-1.26	0.21
	성별	-2.87	0.66	-4.36	0.00
	고등학교 계열	0.33	0.69	0.47	0.64
	진로교육	0.08	0.15	0.54	0.59
	자원봉사활동	-0.58	0.27	-2.18	0.03
	동아리활동	-0.25	0.19	-1.32	0.19
	상수	-9.54	4.38	-2.18	0.03

취업준비집단과 비경활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포부, 성별, 고등학교계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육

포부가 높을수록 취업준비상태보다 비경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자가 남자보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 취업준비 상태보다 비경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준비상태보다 비경활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유의수준 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 최종학력, 학업성적, 진로성숙도, 진로교육 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6〉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취업준비집단을 기준으로

항목		계수	표준오차	z값	유의도
비경활집단/취업준비집단 기준	월소득	1.36	0.71	1.90	0.06
	부 교육	-0.05	0.13	-0.35	0.72
	학업성적	-1.08	0.71	-1.52	0.13
	교육포부	0.74	0.23	3.28	0.00
	진로성숙도	-0.47	0.77	-0.61	0.54
	성별	-1.92	0.80	-2.39	0.02
	고등학교 계열	1.81	0.77	2.35	0.02
	진로교육	0.15	0.20	0.75	0.45
	자원봉사활동	-0.13	0.49	-0.28	0.78
	동아리활동	-0.07	0.21	-0.31	0.76
	상수	-13.28	5.62	-2.36	0.02

3. 2-3년제 대학 vs 4-6년제 대학 로짓분석

2-3년제 대학과 4-6년제 대학 선택을 설명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로짓분석 결과 대학의 유형을 선택하는데 있어 부 최종학력, 학업성적, 교육포부, 성별, 고교계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적과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2-3년제 대학보다 4-6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가,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다닌 경우보다 일반계 고등학교 다닌 경우가 2-3년제 대학보다 4-6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가구 월소득, 진로교육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아리활동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제 대학과 4-6년제 대학 선택을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는 <표 IV-7>에 제시하였다.

<표 IV-7> 대학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

항목		계수	표준오차	z값	유의도
2-3년제 대학/ 4-6년제 대학	월소득	0.33	0.18	1.85	0.07
	부 최종학력	0.06	0.03	2.22	0.03
	학업성적	1.00	0.13	7.46	0.00
	교육포부	0.97	0.10	9.95	0.00
	진로성숙도	-0.06	0.13	-0.46	0.65
	성별	-0.40	0.14	-2.81	0.01
	고교 계열	-1.25	0.20	-6.26	0.00
	진로교육 참여	0.00	0.04	0.05	0.96
	자원봉사활동 참여	0.03	0.06	0.54	0.59
	동아리활동 참여	0.02	0.04	0.54	0.59
	상수	-19.64	1.87	-10.52	0.00

Log pseudo likelihood=-644,0695

Number of Obs.=1509

Wald Chi2(40)=293.79

Pseudo R2 = 0.297***

4. 위험률 분석

재순환 방법'(method of recycling)을 통한 확률변화를 보여주는 방법은 통계적 유의미성에 기반을 둔 방법이 변인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항로지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상확률의 변화로 측정한 결과(위험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 최종학력에 있어서 고졸(12년)과 대졸(16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비해 대졸인 경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위험률 -0.97%). 부의 최종 학력이 고졸에서 대졸로 바뀔 경우 재수를 할 확률은 상당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은 14.52%). 또한 아버지가 고졸인 경우에 비해 대졸인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고(위험률 -9.40%) 취업준비 상태가 될 가능성도 낮아지며 (위험률 15.46%), 비경황상태가 될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위험률 30.12%)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진학 비율에는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진학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재수를 하는 데 대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보다 대졸인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대졸인 경우에 비해 고졸인 경우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가 취업준비 상태이거나 비경황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도를 해 줄 수 있어 자녀가 취약한 진로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포부에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받고 싶은 희망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12년)인 경우와 4년제 대학 졸업(16년)인 경우를 비교하였다. 고등학교 까지 교육을 받고 싶다고 희망한 집단에 비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고 희망한 집단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위험률

168.98%) 재수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위험률 293.67%). 반면 희망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 비해 대학졸업인 경우, 취업을 할 가능성은 낮아졌고(위험률 -62.24%) 취업준비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위험률 -70.71%) 나타났다. 예상하던 바와 크게 달랐던 결과는 희망교육수준이 대졸(16년)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을 희망한 집단에 비해 비경황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는 점이다(위험률 193.95%).

진로 유형 선택에 있어 성별이 갖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대학에 진학한 비율에는 성별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가 비여자에 비해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위험률 -16.07%), 이에 반해 취업을 할 가능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위험률 193.10%). 비경황 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위험률 -78.97%).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고등학교 계열이 갖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할 비율은 낮았고(위험률 -6.64%) 재수할 확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률 -29.91%). 이에 반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고(위험률 431.23%), 취업준비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높았으며(위험률 14.54%), 비경황 상태가 될 확률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위험률 799.57%). 부 최종학력, 교육포부, 성별, 고등학교 계열에 관한 위험률 분석결과는 <표 IV-8> 에 제시하였다.

<표 IV-8> 위험률 분석 1

	진로유형	고졸	대학졸	위험률
부 최종학력	대학	0.82	0.82	-0.97%
	재수	0.12	0.13	14.52%
	취업	0.04	0.03	-9.40%
	취업준비	0.01	0.01	-15.46%
	비경활	0.01	0.01	-30.12%
교육포부	대학	0.25	0.68	168.98%
	재수	0.01	0.05	293.67%
	취업	0.50	0.19	-62.24%
	취업준비	0.23	0.07	-70.71%
	비경활	0.00	0.01	193.95%
	진로유형	남자	여자	위험률
성별	대학	0.81	0.82	0.40%
	재수	0.14	0.11	-16.07%
	취업	0.02	0.05	193.10%
	취업준비	0.01	0.01	18.51%
	비경활	0.02	0.00	-78.97%
	진로유형	일반계	실업계	위험률
고교 계열	대학	0.84	0.79	-6.64%
	재수	0.13	0.09	-29.91%
	취업	0.01	0.07	431.23%
	취업준비	0.01	0.01	14.54%
	비경활	0.00	0.04	799.57%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진로교육 참가가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진로교육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경우와 2가지 유형의 진로교육을 받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가지 유형의 진로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대학진학(위험률 0.17%), 재수(위험률 2.75%), 비경활(4.53%)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로교육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가지 유형의 진로교육에 참가한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상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위험률 -7.82%), 취업준비상태가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위험률 -20.29%)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참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2가지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2가지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대학진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위험률 -0.68%), 재수할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위험률 9.19%). 또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2가지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취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고(위험률 27.81%),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으며(-45.88%), 비경활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위험률 -56.29%)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동아리활동 참가가 갖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에 한번 도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으로 2가지 유형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집단을 비교하였다. 대학진학(위험률 -0.58%)과 재수(-0.56%)에 관해서는 두 집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가지 유형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동아리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위험률 29.68%), 이에 비해 취업준비 상태가 될 확률은 낮아지고(위험률 -7.19%), 비경활 상태가 될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위험률 -14.685) 나타났다. 진로교육 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활동 참가에 관한 위험률 분석결과는 <표 IV-9>에 제시하였다.

〈표 IV-9〉 위험률 분석 2

	진로유형	불참	2 유형 참가	위험률
진로교육	대학	0.81	0.82	0.17%
	재수	0.12	0.12	2.75%
	취업	0.04	0.04	-7.82%
	취업준비	0.01	0.01	-20.29%
	비경활	0.01	0.01	4.53%
자원봉사활동 참가	대학	0.82	0.81	-0.68%
	재수	0.12	0.13	9.19%
	취업	0.03	0.04	27.81%
	취업준비	0.01	0.01	-45.88%
	비경활	0.02	0.01	-56.29%
동아리활동	대학	0.82	0.82	-0.58%
	재수	0.13	0.13	-0.56%
	취업	0.03	0.04	29.68%
	취업준비	0.01	0.01	-7.19%
	비경활	0.02	0.01	-14.68%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가구 월 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월가구소득의 경우와 평균 월가구소득보다 1 표준편차 높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가구 월소득이 평균인 경우에 비해 1 표준편차 높은 경우는 대학에 진학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위험률 -3.97%), 재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위험률 38.55%)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구 월소득이 평균인 경우에 비해 1 표준편차 높은 경우,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고(위험률 -26.83%), 취업준비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위험률 -44.76%)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해 학업성적이 평균점을 가진 경우와 평균점보다 1 표준편차 높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학업성적이 평균인 집단에 비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은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위험률 0.85%), 재수할 확률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위험률 4.61%), 취업준비 상태에 있을 확률에도 차이가 없었다(위험률 -0.25%) 이에 비해 학업성적이 평균인 집단에 비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할 가능성은 낮았으며 (위험률 -19.85%), 비경활인구에 편입될 확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위험률 -49.21%).

〈표 IV-10〉 위험률 분석 3

	진로유형	평균	+ S. D.	위험률
가구 월소득	대학	0.83	0.80	-3.97%
	재수	0.11	0.16	38.55%
	취업	0.03	0.02	-26.83%
	취업준비	0.01	0.00	-44.76%
	비경활	0.01	0.01	-0.75%
학업성적	대학	0.82	0.83	0.85%
	재수	0.12	0.13	4.61%
	취업	0.03	0.03	-19.85%
	취업준비	0.01	0.01	-0.25%
	비경활	0.01	0.01	-49.21%
진로성숙도	대학	0.82	0.82	-0.23%
	재수	0.12	0.13	5.81%
	취업	0.04	0.04	-0.33%
	취업준비	0.01	0.01	-11.03%
	비경활	0.01	0.01	-31.15%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 선택에 있어 진로성숙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성숙도가 평균인 경우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진로성숙도가 평균인 경우에 비해 1 표준편차 높은 경우를 비교한 결과 대학진학(위험률 -0.23%)과 취업(위험률 -0.33%)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재수를 할 확률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위험률 5.81%) 이에 반해 진로성숙도가 평균인 경우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 상태에 있거나(위험률 -11.03%) 비경활 상태에 있을 확률은(위험률 -31.15%)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소득, 학업성적, 진로성숙도에 관한 위험률 분석 결과는 <표 IV-10>에 제시하였다.

V. 결 론

1. 분석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V. 결 론

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고등학교 졸업자의 92.58%가 대학에 진학을 하였거나(79.3%) 대학진학을 다시 준비하고(13.28%)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비율은 4.1%였으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가사·육아, 입대준비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NEET) 상황에 있는 고졸자의 비율은 모두 합하여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대학 진학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선택에 비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등교육이 갖는 이점을 모든 대학 진학자들이 누리는 것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졸업자들의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이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했거나 대학진학준비를 다시하고 있는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진출이 지연되는 상황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이 당연시됨으로 인해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청소년들이 관심에서 소외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한다. 상급학교 진학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으

며,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지도나 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록 적은 수이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원활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진학 집단과 재수 집단을 비교한 결과 가구의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대학교육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3.28%의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에 실패했다기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 기회를 얻기 위해 다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수를 하려면 전적으로 사교육비에 의존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에서 재수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재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학진학집단과 취업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월평균가구소득, 교육포부, 성별, 고등학교 계열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해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이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가 여자보다 대학교육을 받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의 하나는 대학진학집단과 취업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경제적 배경요인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학업성적은 의미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결과를 통해 대학교육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업준비도를 가진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학진학집단과 취업준비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교육포부와 가구의 월소득이었고, 대학진학집단과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학업성적, 성별, 고등학교 계열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집단에 비해 취업준비집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낮지만, 학업성적은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비경제집단은 대학진학집단과 사회경제적 지위

는 유사한 반면, 학업성적은 낮고 교육포부수준에 있어서는 대학진학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재수집단과 취업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월평균가구소득, 학업성적, 교육포부, 성별, 고등학교 계열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집단과 취업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이 교육포부와 가구월소득 뿐이었다는 점과 대비를 이루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재수집단과 취업준비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월평균가구소득과 교육포부이며, 재수집단과 비경활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학업성적, 성별, 고등학교 계열, 자원봉사활동으로 나타났다. 교육포부는 재수집단과 비경활집단을 구분하는데 의미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취업집단과 취업준비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고등학교 계열이었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취업준비집단과의 비교 결과와 달리 비경활집단과 취업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교육포부, 성별, 자원봉사 활동 참가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취업을 하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는 비경활집단이 대학진학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는 차이가 없지만 성적이 낮은 반면 교육포부는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분석결과와 함께 청소년들이 교육포부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업성적이 낮지만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 않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현재 학업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교육포부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이러한 경향을 더 커진다. 높은 교육포부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높은 교육포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결과는 높은 교육포부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해할 수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도 취업준비를 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3년제 대학과 4-6년제 대학 선택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성적과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4-6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고,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문계 졸업자보다 4-6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유의성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위험률 분석 결과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항로짓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포부가 높은 것이 청소년들의 진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이 위험률 분석결과에서도 다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와 대졸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 대학진학 확률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취업준비 상태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주의가 요구되는 결과이다. 비경제활동집단에는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학업성적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높은 교육포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진로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희망해도 쉽게 취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교육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2가지 유형의 진로교육에 참여한 집단은 취업준비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교육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미리 준비하고, 직장을 얻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자원봉사활동 참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에 비해 2가지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업상태(취업준비)에 있을 가능성이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과 유사하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동아리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취업준비 상태에 있을 확률과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이외의 자원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유익한 경

힘을 제공하며,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정책적 제언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관련 정책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함의를 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지도와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고졸 비진학자 및 고졸 실업자에 대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방안 모색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타났다. 특히, 취업준비(실업) 집단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나 진로성숙도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도 다른 집단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준비로 인해 소수에 해당하는 대학 비진학자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필요에 적합한 진로지도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은 대다수의 청소년들과 다른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인해 제도교육 내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공백 없이 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고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이나 NEET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졸업 후 진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고등학교 재학 중에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열악한 근로여건 때문에 이직의 가능성이 높은 고졸 취업자들을 위해 특화된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인수·김기민(2005)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전체 청년실업자 중 고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으며, 대졸실업자들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취업, 실업, 비경황 사이를 오가며 직업비정착 상태에 있는 자가 더 많다. 고졸 청년층은 취업 이후에도 인적자원 축적이나 자기개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전병유·이상일,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은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업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미취업 또는 이직 가능성을 안고 있는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역량을 개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술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특화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취업 희망 집단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는 집단과 취업을 하는 집단은 상당히 다른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 두 경로가 다른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동아리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학진학이나 재수를 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취업준비 상태에 있을 확률과 비경황 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업 이외의 진로교육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동아리 활동 참여가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경험을 제공하며, 실업이나 비경황 상태에 놓이지 않고 취업을 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 많은 청소년 단체와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영역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들을 기를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3) 고졸자를 위한 양질의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무분별한 대학 진학 억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다.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률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수가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을 진학하는 현재의 상황은 청년실업, 하향취업 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 독립과 결혼 및 출산 등과 같은 성인기의 이행을 지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대학졸업자들의 하향취업은 고졸자들의 취업 기회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대학진학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용이 높다. 불필요한 대학진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양질의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원래 설립 목적이 부합되게 전문 기능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인력 부족 직종을 파악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직업훈련기관과 기업 및 학교의 협력체제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경찬(1997).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소희(1996).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숙(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연, 강경찬(1995). 고교생의 진로성숙, 진로포부, 결정요인 탐색, 교육연구논집, 12, 5-42
- 김성환, 전용석(2005). 청소년 진로선택 결정요인: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 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35-246.
- 김정숙,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능력 개발연구, 10(3), 1-23.
- 김중운(2006). 도시와 농촌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직업관 비교 연구, 진로교육연구, 19(1), 25-38.
- 김지혜(1998).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141-160
- 김현옥, 김충기(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직업교육연구, 8(1), 143-160
- 김혜은(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홍규(199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문승태, 이상래(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성, 계열,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 한국농업교육학회, 34(4)
- 문승태, 김연희(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지, 34(2), 49-60.
- 문승태, 김연희(2005).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1-16.

- 박현주, 김봉환(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19-439
- 선혜연, 김계현(2007).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1997년~2006년, 상담학연구, 8(4), 1467-1483
- 송민진(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연구, 26, 33-43
- 신재순(1998). 상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경, 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 오정란(1998).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8(1), 19-40.
- 유영미, 문승태(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8(2), 243-257
- 이가영, 김신영(2009). 청소년의 사회연결망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2(2), 21-45.
- 이기학, 김명원(1998).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277-298
- 이기학, 한종철(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 정도의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335-449
- 이병석(1992).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승국(1999). 중등학생의 진로성숙수준과 개인의 내·외 변인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2003).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교육의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7(3), 633-650
- 이정규(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지연 외(1998). 한국인의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교육모형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현주(1998). 진로의사결정과 개인적 변인들과의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18(2),

223-276.

장원섭(1997). 교육과 일의 사회학. 서울: 학지사.

장원섭(1999). 시간제 취업이 고등학생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1): 197-227.

장원섭(2006). 일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장원섭, 김형만, 옥준필(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병유, 이상일(2003).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정윤경(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축, 직업능력개발연구, 5(2), 147-172.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49-292.

정인수, 김기민(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43-62.

조아미(2001). 청소년의 직업기대와 진로 결정 유형, 인문과학논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조아미(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조아미(2005). 청소년의 직업결정 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799-816

차재권(1998).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창균(2009).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직업과 인력개발, 12(1), 55-74.

최영준(1990). 농촌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인과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9(1), 115-130.

허정철(2008).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5), 181-210

홍영란(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매향, 임은미(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Bennett, K. P. and M. D. LeCompte(1990). *The Way Schools Work: A Sociological Analysis of Education*. New York: Longman.
- Bills, D. B.(2004). *The Sociology of Education and Work*. Malden: Blackwell.
- Blau, P. M. and O. Duncan(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Bowles, S. and H. Gintis(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Crites, J. O.(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CA: McGraw-Hill.
- D'Amico, R.(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57: 152-64.
- Granovetter, M. S.(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 D. L.(1990). High school student employment in social context: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role of part-time work. *Adolescence* 25: 425-434.
- Greenberger, E. and L. Steinberg(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ew York : Basic Books.
- Gribbons, W.D. and Lohnes, P.R(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3-20
- Herr, E.(2001). *Career Development and Its Practice: A Historical Perspectiv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 196-205.
- Herr, E. L. and S.H. Cramer(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span: systematic approaches*, fifth edition. Addison Wesley Longman, Inc.
- Koo, H. and D. Hong(1980). "Clas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610-626.
- Lawrence, W. & Brown, D.(1976). An investigation of intelligence, self-concept,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sex as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9, 43-52
- Lee, C.(1984). Predicting the career choice attitudes of rural black, white, and native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3), 177-184.
- Lin, Nan and M. Dumin(1986). "Access to Occupations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 365-385.

- Lin, Nan(1982).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Pp.131-145 in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edited by Peter V. Marsden and Nan Lin, Beverly Hills, CA.: Sage.
- Mortimer, J. T. and M. D. Finch(1986).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o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K, Borman and J. Reisman(eds.). Becoming a Worker, 66-89. Norwood : Ablex.
- Mortimer, J. T. and M. D. Finch(1996). Adolescents, work, and family. Thousand Oaks: Sage.
- Mortimer, J. T. and M. J. Shanahan.(1994). Adolescent work experience and family relations. Work and occupations. 21: 369-84.
- Mortimer, J. T., M. J. Shanahan and S. Ryu. (1993). The effects of adolescent employment on school related orientation and behavior.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 edited by R. K. Sulbereisen and E. Todt. New York: Springer-Verlag. Pp. 304-326.
- Sewell, W. H. and R. M. Hauser(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New York: Academic Press.
- Sewell, W. H., A. Haller, and A. Portes(1969). "The Early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82-92.
- Sewell, W. H., R. M. Hauser, and W. C. Wolf(1980). "Sex, Schooling, and Occupational Statu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551-583.
- Sewell, W.H. and Orenstein, A.M.(1965). Community of residence and occupational choi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2), 551-563.
- Sewell, W.H.(1964). Community of residence and college plan, American sociology review, 29(1), 24-38.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김진호·임성택·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옥·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복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 · 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 · 안선영 · 장상수 · 김미란 · 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 · 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 · 박영균 · 성운숙 · 문경숙 ·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 · 박수선
- 09-R40 2009 아동 · 청소년백서 / 김기현 · 김지경 · 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 · 이기봉 · 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 · 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 ·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이혜연 · 서정아 · 홍연균 ·
유진이 · 김영호 · 김광남 · 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 · 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 · 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 · 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발전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 · 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중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 · 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 · 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 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815-1(93330)

ISBN 978-89-7816-812-0(93330)(세트)